

박원순 등 전국 15개 시·도 단체장

“5·18 폼페이는 민주주의 부정”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단체장들은 24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규탄하며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동참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은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역사”라며 “최근 우리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장문 발표 후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5월 자행된 총칼의 학살이 이제 망언의 학살로 이어지고 있다”며 “광주시민들은 다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모독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당은 (망언을 한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세 사람의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죄의 원인을 제명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죄의 원인을 제명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이용섭 시정에 직접 문자메시지로 사과의 뜻을 전한 권영진 시장이 성명에 불참한데 대해 박원순 시장은 “권 시장은 망언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유감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맞다. 그런 마음을 특별히 이용섭 시장에도 전달한 바 있다”면서도 “당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시장은 이 시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인해 5·18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시민에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다”며 “한국당 소속 대구 시장으로서 이 시장과 광주시민에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도 “권 시장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고 저 역시 감사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국회서 입장문 발표...“총칼 학살이 망언의 학살로”

무소속 원희룡 동참... TK한국 이철우·권영진 불참

“5·18 망언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민주주의 부정”

이용섭 “국회 윤리위, 한국당 망언 3인방 제명해야”

박 시장과 시·도 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으로 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외한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회 구성원 일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그 정신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폼페이와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폼페이와 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망동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

19년만에 ‘호남 출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5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정부 예산 편성의 실무작업을 총괄할 기재부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에 호남 출신이 19년만에 임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전남 화순 출신인 안도걸(54)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 그는 호남 출신으로 고인이 된 입상규 전 순천대 총장이 김대

중 정부시절인 2000년 예산총괄심의관 자리에 오른 뒤 19년만이다. 예산총괄심의관은 정부 부처 중장·차관을 제외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예산실장으로 승진이 관례처럼 됐다. 이를 감안하면 안 심의관의 예산실장 승진도 유력하게 보인다.

안 총장도 그 자리에서 2002년 예산실장에 오른데 이어, 과거부



차관, 농림부 장관까지 지냈다. 호남 출신 예산실장은 3선 국회의원인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2004년~2005년)

이 임명된 2005년이 마지막이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인 안 심의관은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와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당 지지층 당대표 선호도 黃 61% 1위...金 17%, 吳 15%

황교안, 전 지역·계층 높은 지지
김진태·오세훈, 2위 싸움 박빙'



김진태(왼쪽부터), 오세훈, 황교안 당대표 후보자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 가운데 황교안 후보가 당 지지층으로부터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0~23일 자유한국당 지지층 가운데 전국 성인남녀 710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후보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p)한 결과, 황교안 후보가 60.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뒤이어 김진태 후보는 17.3%, 오세훈 후보는 15.4%를 각각 기록했다.

황 후보는 모든 지역·계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며 선두를 달렸다.

한국당 텃밭인 영남권에서는 대구·경북(TK) 68.1%, 부산·경남(PK) 6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7.1%)·30대(60.7%)에서 높았고,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67.3%)과 보수층(62.7%)에서 모두 선호도가 높았다.

김 후보는 충청(21.2%), 서울(18.9%), 경기·인천(17.8%), PK(16.6%)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20.3%)·20대(19%)·60대 이상(15.1%)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보

수층(18.8%)·진보층(14.4%)에서도 오 후보를 제쳤다.

오 후보는 서울 18.4%, 경기·인천 15.3%로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TK와 PK에서는 각각 12.1%를 기록해 황 후보와 50% 이상의 큰 격차를 보였다. 주로 30대(21.9%)·40대(20.4%), 중도층(21.0%)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다.

이같은 결과는 ‘황교안 대세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황 후보가 계속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2위와 3위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여서 27일 전 당대회까지 당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할 전망이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누가 당 대표

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37%가 오 후보를 뽑았다. 황 후보는 22%, 김 후보는 7%였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황 후보가 52%로 과반이 넘었고, 오 후보는 24%, 김 후보는 15%를 기록해 국민여론과 한국당 지지층의 당심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후보별 호감도에서는 오 후보가 전체 응답자의 41% 지지를 받으며 가장 높았고 황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27%, 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당 지지층이 꼽은 후보별 호감도는 황 후보가 71%, 오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49%, 38%로 큰 격차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文대통령, 주말 공식 일정 비우고 북미회담 상황 주시

28일 회담 결과에 촉각...공식 입장문 발표할 예정



북미 정상이 두 번째로 손을 마주 잡는 세기의 이벤트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금주 베트남 상황을 주시하면서 국내 일정도 빠짐없이 소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3~24일 주말 공식 일정을 비우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이동 상황, 북미 실무 대화의 진척 상황 등 베트남 현지 동향을 수시로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북미회담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28일에도 공식 일정을 비우고 베트남 상황에 모든 촉각을 기울일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후 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

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도 대변인의 대독 형태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회담 개최 6일 전부터 외부 일정을 삼가고 경내에 머물며 북미 정상회담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이번 2차 회담을 앞둔 금주에는 예정된 공식 행사와 회의 일정 등을 빠짐없이 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년간 소화해 온 외교·안보 이슈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과 노련함이 묻어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예정돼 있어 국내 행사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월요일마다 주

재해 온 수석·보좌관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안보실로부터 이틀 남은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 상황과 향후 시나리오별 우리 정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평가하며 상징성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북미 대화에 거는 우리의 기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언급도 있을 전망이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